“작은 정성 큰포교…동참하세요”

경기도 고양 호국 백마사 군장병들이 법보시된 현대불교신문을 읽고 있다.

사진제공=이익수 군법사

일주일에 한번 세상과 만나는 窓
“늘 새롭고 친숙하고 읽기 쉬워요”
“법보시야말로 불사 중의 불사죠”

일주일에 한 번, ‘현대불교’를 받는 것이 기쁘고 반갑다 못해 혼자 보는 것이 아까워 보시에 나선 사람들이 있다. 10여 년간 장기구독을 했을 뿐 아니라 교도소, 군 · 경찰 · 병원법당, 복지관 등지에도 신문이 전달될 수 있도록 매달 법보시 후원금을 내고 있는 후원자가 그들이다.

올해 63살의 민성곤씨(서울시 서초구)는 어린 시절 허리를 다친 이후로 40년 간 꼬박 자리에 누워 지내온 지체장애인이다. 그런 민씨가 ‘현대불교’를 처음 만난 것은 10여 년 전. 집에 있던 <팔만대장경>을 독파하고도 진리에 대한 타는 듯한 궁금증을 풀지 못했던 민씨는 우연히 대행 스님을 알게 된 후 대행 스님의 법어를 읽기 위해 ‘현대불교’를 구독신청 했다. 신문을 통해 큰스님들의 법문은 물론, 불교계의 소식도 들을 수 있게 됐기에 목마름이 컸던 만큼 해갈의 기쁨도 컸다.

홀로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있어야 하는 민씨는 ‘현대불교’야말로 일주일에 한 번 세상과 만날 수 있는 창이라고 말했다. 매달 1만원씩 후원금을 보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저처럼 마음이 불안하고 고통 받는 상황에 계신 분들에게 위안을 줄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법보시를 시작했습니다.”

잠 잘 때도 ‘현대불교’를 옆에 끼고 잘 정도로 애독자인 심숙희씨(52 · 경북 상주시)는 교도소나 군부대 등 사회와 격리돼 있는 곳의 불자들에게 법음을 전하고자 법보시에 동참했다.

“불자들 중에는 ‘우리 절 불사도 아직 못했는데 무슨…’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겠지만, 군포교야말로 불사 중의 불사 아닌가요”라고 묻는 심씨는 “불교 포교가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여력이 닿는 만큼 법보시 후원을 하면, 아주 작은 노력이라도 반드시 포교에 보탬이 되리라고 믿어요”라고 강하게 말했다.

창간호 때부터의 구독자이자 2002년부터 법보시에 동참하고 있는 장현만씨(48 · 전북 전주시)와 김용호씨(39 · 경기도 남양주시)는 “얼마 안 되는 돈이라서 후원자라고 말하기도 쑥스럽습니다”라며 부끄러워했지만 이내 군법당, 병원법당 등에서 보면 좋을 것이라 생각해 법보시를 시작했다”고 후원이유를 털어놓았다. 십여 년 전, 아장아장 걷는 아들의 손을 잡고 서울 조계사에 들렀다가 ‘현대불교’를 알게 된 장씨는 ‘현대불교’의 장점이 “늘 새롭지만 편하고, 친숙하며 읽기 쉬운 점”이라고 꼽으며 “때문에 초심자나 입문자에게도 권하기 좋다”고 전했다.

한마음선원 안양본원의 신도라고 밝힌 김씨는 “법보시를 받는 분들에게 어둠을 밝히는 마음의 양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작은 힘이나마 모으면 커질 것으로 믿는다고 입 모아 말한 네명의 독자들은, 좀 더 많은 독자들이 ‘현대불교’ 법보시에 동참하기를 바란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1구좌 1천원으로
자비와 지혜의 법등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소외된 이웃과 우리 사회를 지켜가는 분들에게 부처님의 정법을 전하고자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양로원, 고아원, 병원 및 사회 복지단체 등을 대상으로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 불국토를 가꾸어 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매월 1천여 법보시 후원자가 동참하여 매주 1,309부의 신문이 군장병, 교도소 수형자. 군 · 경찰 병원 등으로 발송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50여만 부의 신문이 포교사 기능을 훌륭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보시는 일시적이지만 법보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에게 무한한 공덕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금강경>을 통해 “사구게 하나라도 남에게 일러주는 공덕이 삼천 대천 세계를 가득 채울 만큼의 칠보로써 보시한 공덕보다 더 크다”고 하셨습니다.

■ 법보시 동참방법: 매월 1,000원 1구좌 이상 전화로 신청

■ 법보시 동참 문의 및 안내
현대불교신문사 고객 1팀
(02)2004-8211~2(직통), (02)2004-8200(대표), 팩스(02)737-0697

● 매주 법보시 받는 단체 · 시설 ※2006년 5월 현재

구분	발송처	보시	부수
군부대	군법당	349	410
	국군병원	7	9
교화기관	교도소	47	226
	교정청	2	6
	소년원	12	36
	구치소, 감호소	12	57
	감별소	3	9
복지단체	아동복지	24	24
	노인복지	23	23
	의료기관	14	72
	복지단체/협의회	56	57
	장애인복지	11	11
	청소년복지	12	12
	지역복지	19	19
	기업복지재단	8	8
	복지관련대학	35	35
경찰	경승실	186	190
	경찰병원	2	6
기타	개인	57	57
	단체	34	42
총계		913	1,309

‘현대불교’ 법보시 후원 동참에 감사드립니다

강대덕행 강덕순 강도분 강릉지원 강명옥 강명자 강미경 강미숙 강수옥 강순희 강신택 강영내 강영신 강인자 강점숙 강춘계 강혜숙 강황진 강후원 경연혜 계미영 고경옥 고은영 고재숙 고재흥 고준영 고필선 고헌사 공덕화 공정심 공평근 곽동희 곽명순 곽문용 곽성순 곽우진 곽은아 곽중경 곽춘자 광명선원 광주지원 구길자 구명보 구수연 구주현 구필회 국인호권경숙 권구현 권두상 권명아 권미경 권순남 권오응 김갑순 김강산 김강웅 김건용 김경수 김경옥 김경옥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규순 김규정 김금옥 김금천 김기성 김기자 김기준 김기홍 김나령 김남규 김남오 김다래 김달순 김덕임 김동원 김동자 김동찬 김둘남 김명란 김명란 김명숙 김무재 김문윤 김문자 김미래 김미연 김미진 김민정 김병일 김병희 김복남 김복영 김봉란 김봉애 김비연 김상필 김상호 김석동 김석자 김선아 김선엽 김선영 김선화 김성수 김성순 김성자 김수옥 김수정 김숙자 김순금 김순련 김순복 김순옥 김순자 김순희 김승재 김승호 김승훈 김안숙 김애자 김양순 김여경 김여순 김연수 김연옥 김연희 김염순 김영선 김영수 김영숙 김영식 김영애 김영예 김영옥 김영자 김영출 김영팔 김옥남 김옥선 김옥순 김옥정 김용만 김용순 김용재 김용호 김우전 김원용 김윤관 김윤자 김은식 김의식 김인태 김재방 김정권 김정규 김정덕 김정렬 김정숙 김정숙 김정아 김정애 김정옥 김정원 김정희 김종영 김주현 김준형 김중철 김지숙 김지영 김지혜 김진근 김진선 김진영 김채란 김철수 김춘희 김태수 김택곤 김학근 김학수 김한구 김향숙 김현국 김현숙 김현우 김현주 김현진 김현화 김형운 김형태 김혜옥 김홍조 김화남 김화일 김효래 김효혜 김효상 김희순 김희주 김희진 나귀례 나민자 나숙희 나순옥 남광스님 남국석 남선자 남수경 남여원 남유선 남종진 남주희 남현우 노성일 노성재 노승현 노실호 노영애 노윤택 논술문화 단영숙 대구지원 덕장스님 도미라 도태순 류동연 류송우 류정오 류지형 류해창 마정혜 마진호 맹남균 목포지원 문경숙 문경지원 문두상 문상철 문숙희 문순조 문영희 문재근 문정희 민경애 민성곤 민정원 민진옥 박경국 박경옥 박경자 박경희 박공임 박금봉 박기숙 박기정 박남순 박덕엽 박말이야 박맹순 박명란 박명희 박무주행 박미자 박봉균 박봉기 박봉순 박봉영 박상기 박상 돈 박상섭 박상섭 박선애 박성수 박수경 박수영 박숙자 박숙희 박순애 박신영 박양주 박연숙 박연신 박영숙 박영준 박영춘 박옥경 박옥남 박용무 박용배 박용옥 박용진 박원희 박은미 박은주 박인서 박인선 박인화 박장미 박형채 박재석 박재윤 박정노 박정상 박정숙 박정숙 박정숙 박정순 박정옥 박정자 이보편 박정희 박종임 박종희 박주찬 박주호 박지연 박진우 박경환 박정자 박찬 박천혜 박철홍 박청길 박춘미 박춘봉 박태균 박한기 박향옥 박현동 박현순 박현주 박형숙 박혜경 박혜리 박혜선 박혜선 박화재 박희순 방명극 방명섭 방미애 방순자 방장수 배민화 배임선 배정임 배춘자 배태열 배현옥 백규현 백연숙 백영북 백인창 백종희 백혜원 변영희 변용태 본원 봉철웅 봉현주 부산지원 부천지역법보시 불교문화회관 상현스님 서경자 서덕교 서미옥 서병학 서영주 서영혜 서예숙 서울월곡청소년 서원석 서윤이 서의숙 서재영 서정우 서청자 서춘건 서희숙 석영수 선덕스님 선현자 성경순 성민자 성재영 손문철 손순옥 손영실 손은주 송길순 송동호 송연희 송용관 송은경 송인옥 송재운 송 정구 송종화 송필재 송희경 신근덕 신남선 신덕근 신덕근 신동호 신상균 신성완 신수영 신수호 신영찬 신용례 신용천 신윤기 신재철 신정규 신조현 신주호 신진임 신진희 신창순 신현순 신혜경 신효철 신희순 심경우 심광화 심길현 심숙희 심영애 심영애 심원식 심현보 안광기 안국선원 안병윤 안은경 안은희 양세욱 양순조 양연숙 양연희 양영모 박경수 양익수 양재호 양재호 양준원 양태환 양현주 양흥용 엄재성 엄재욱 엄흥수 엄흥수 여상배 염흥수 오경환 오광자 오미덕 오병덕 오상숙 오승훈 오승희 오신재 오원중 오재영 오정남 오정애 오정자 오지은 오창순 오학규 오현규 오현자 오현희 옥영식 우동렬 우병선 우지예 우진궁 우춘자 울산지원 원각스님 원판영 위영란 위주환 유경자 유금열 유보향 유영미 유영신 유종옥 유준호 유지연 유지호 유진옥 유태선 유효봉 육성희 윤경환 윤기석 윤기원 윤기홍 윤대수 윤병덕 윤병창 윤분숙 윤상현 윤석완 윤선영 윤여형 윤영숙 윤오인 윤우식 윤정연 윤정일 윤제학 윤종숙 윤지웅 윤지은 윤채남 윤춘매 윤춘희 윤현숙 윤현순 윤희원 은석초등학교 이강만 이강희 이건우 이건중 이경남 이경숙 이경애 이경영 이경원 이경자 이경주 이경희 이광수 이광훈 이구자 이군자 이귀순 이규달 이규만 이근기 이근혜 이기선 이기수 이기오 이길순 이단식 이대섭 이대성 이대주 이동주 이동진 이두영 이명규 이명숙 이명숙 이명순 이명희 이미경 이미나 이미라 이미정 이미화 이병태 이복동 이복성 이복희 이상옥 이상은 이상태 이석순 이선례 이성용 이수양 이숙경 이순덕 이순복 이순자 이순화 이순희 이승남 이승윤 이승훈 이신정 이양희 이여주 이연보 이연애 이영경 이영득 이영숙 이영순 이영신 이영자 이영진 이영환 이영희 이옥순 이옥순 이왕구 이왕진 이용법 이용원 이용재 이용진 이우순 이우진 이우환 이운화 이원상 이원애 이원희 이유순 이윤희 이은구 이은숙 이은주 이은희 이익수 이재숙 이정남 이정숙 이정순 이정안 이정임 이정조 이정헌 이정희 이종섭 이종성 이종숙 이종옥 이주복 이준구 이준섭 이준재 이중기 이지영 이지현 이진선 이진순 이찬수 이창호 이철헌 이청 이춘근 이춘자 이충선 이태인 이태희 이필희 이한희 이항우 이해송 이행자 이향림 이향순 이현숙 이형신 이형오 이형호 이혜숙 이화자 이효직 이훈노 이 희숙 이희영 일진성 임경희 임광기 임동하 임명옥 임병기 임선희 임성중 임영애 임옥빈 임용호 임점순 임정숙 임종구 임춘옥 임춘희 임형준 임용식 장기환 장명호 장문규 장미숙 장미순 장성윤 장영남 장재국 장재원 장정 장정자 장정희 장현만 장혜선 장희숙 전경희 전계영 전명국 전병수 전수남 전유신 전은희 정각원 법당 정경남 정구순 정규열 정근희 정금란 정금자 정대자 정명자 정미련 정민오 정상만 정설매 정성남 정수자 정연경 정영수 정영숙 정영신 정영희 정옥녀 정운경 정윤채 정은영 정응균 정인순 정인자 정차효 정창남 정창래 정필순 정하석 정학진 정한영 정회철 제주지원 조경숙 조계희 조공옥 이산궁 조권식 조귀자 조근영 조명래 조명숙 조미란 조민규 조복순 조봉호 조양순 조영석 조옥순 조원희 조재규 조정해 조정희 조진한 조창희 조현수 조현우 조현정 조현주 조혜숙 주경숙 주미숙 주정숙 주정옥 주정희 주희숙 중부경남지원 지경애 지명구 지혜선 진동석 진말련 진수명 진영숙 차민영 차민영 채은훈 천병길 천상봉 천수해보살 천영기 청무스님 청주지원 최경락 최경진 최병조 최복림 최복섬 최복순 최상철 최선숙 최순옥 최영숙 최옥자 최원주 최윤희 최은희 최인자 최정기 최정미 최정희 최종열 최준성 최준영 최태영 최태준 최학우 최행규 박기순 최희숙 탁순례 태순덕 통영지원 포항지원 하근수 하미경 하미희 하재한 하정숙 하정희 하태선 한경자 한기영 한기준 한마음선원본원 한숙희 한영순 한윤진 한은섭 한은영 한인식 한동원 한세진 한재희 한철화 한화성 한화윤 허경순 허미옥 허복영 허성국 허승재 허재승 허태영 허태환 현남순 현미숙 현석선 호소희 홍경욱 홍경화 홍순 홍순아 홍애순 홍월자 홍학란 황경숙 황경욱 황금영 황논철 황순수 황순심 황옥자 황용숙 황인순 황인형 황정숙 황태숙

(2006년 5월 현재 · 가나다 순)

(불자정보)
● 규격:5×5cm=50.000원
● 계좌:농협 053-01-227471 (예금주:현대불교신문사)
· 전화:02) 2004-8213~6 02)732-1522 (直)
· 전송:02) 737-0696
· e-mail:jabi1522@empal.com

토굴별장안내
● 위치: 남덕유산 자락
● 부지: 1630평
● 가옥: 신축황토기와집 55평
● 가액: 5억5천(대출가능)
● 특징: 맑은 개울과 집뒤에 솔숲 넓은 정원을 갖춘 아름다운 집 주인직접 살고 관리해옴
016-367-2112

사찰(급)안내
● 위치: 전남 화성군
● 특징: 산세수려하고 양쪽으로 계곡이 흐르며 큰 호수 있음
● 평수: 1200평
● 임법당, 요사채, 차고, 창고 있음
● 주지스님 건강 상태로 매우급함
● 가액: 1억2천만원(가격절충)
010-4604-9255

포교원안내
● 위치: 서울 동대문 청량리시장안 교통아주편리,버스 · 전철 · 기차역 5분거리,인구이동 많음
● 상가건물 2층 중 2층. 50평 법당1,방3,주방, 기타시설완비, 옥상사용
● 가액 : 보증금 400만원,월20 시설,수리비3300만원
010-7135-4030
꼭 오실분만 전화요망

사찰안내
● 위치: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252번지
● 대지: 문화재급 목조건물 대웅전 36평 요사채 30평
● 삼성각 6평, 종 누각 2층 10평
● 미륵부처님, 부처님 다 모셔져있음
● 물좋고 산세 수려함.
기도도량으로 최적 ● 가액: 15억
031)674-1117
011-250-7279

토굴안내
비구니스님 적지
● 위치: 전남 여수 돌산
● 대지 420평, 법당 30평, 산신각, 큰방2, 창고1, 입불2.5m 한분
● 가액 : 5천만원
● 마당까지 주차가능, 시내버스 종점에서 약 200m
061)684-3494
061) 684-2399
010-3114-3494

칠갑산줄기 사찰터
● 방향 : 서, 남향(연화부수형)
● 위치: 부여군 은산면 오번리 산 2-4 산세좋고 공기 맑음
● 면적:15485평(관리지역) 평 3만원
● 특징: 산앞 냇가 흐름 (서쪽에서 동쪽으로)
● 도로현존(공부상현존) 2차선에서 350m진입, 휜히보임 고속도로 I.C 에서 4.5km 전방
011-433-1744
(주인 직거래, 답사 환영)

사찰안내
● 위치: 충남 보령시 주고면 신대천리
● 건물: 611평 2층건물 1층 요사채 50평 2층 법당 27평
● 가액: 2억5천만원
041)932-0533
016-236-0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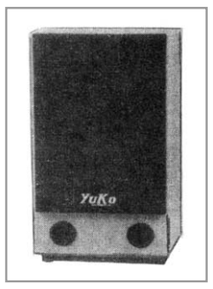
밀양 사찰(급)안내
● 대지 500평, 건물 약 100평
● 위치 : 대구 부산 신 고속도로 밀양 IC 8분 거리
● 가액 : 3억 5천(은행 대출 2억 가능)
현금가액 : 3억2천 조절가능
※ 꼭 하실분만 연락바람
010-5572-1501

사찰안내
● 위치 : 강원도 최고의 관광지 기도처
● 법당, 요사채 집기일체양도
● 가액 : 14억(절충가능)
● 기타 : 꼭 필요하시분만 연락바람
010-6248-7345

포교당안내
● 위치 : 대구 아파트 밀집지역 시장 사거리
● 평수 : 50평(3층 건물중 3층). 옥상 50평 사용 가능
● 큰방3개, 삼존불, 후불, 신중, 칠성, 산신탱화
● 법당 앰프시설, 법당 주지실, 에어컨 설치
● 가액: 보증금 1천만원에 월 40만원 시설비 답사 후 결정
011-9391-8117

명당(부귀복덕)적지
사 찰 안 내
● 위치 : 서울시 동작구 대방동 지하철 1호선 7호선 7-10분 거리
● 대지 184평, 건평184평
● 2Km이내 중산층(아)5만세대 중,고교18 · 초등13곳
● 포교당 최적, 시가 17억원
연락처: 011-9646-1990

사찰, 법당, 앰프 전문
지난 30년간 사찰의 앰프, 마이크, 스피커 소리를 연구해온 音響硏究家 金文華가 직접 설치해 드립니다
DX-707 스텐드 마이크 하나만으로도 법당의 소리가 3배 좋아집니다!

염불, 설법 전용 고성능 마이크
DX-707스텐드 마이크
마이크 가격 : 250,000원
◇ 소리공양 종목 ◇
▷ 사찰 법당 앰프설치
▷ 고성능 무선마이크
▷ 각종 마이크 판매
▷ 법당전용 스피커


바구니스님 특별우대!
▌법당전용스피커 YM-520
유코음향연구소
소장 김문화 : 011-335-2695
서울 양천구 신월 3동 48-9 종경빌딩 300호
(02)2697-9976, 2605-3235, 2601-8284
홈페이지 : www.yukosound.com